

# 02

FTA 최근동향



# 02 FTA 최근동향

## I. 관세청 주요 이슈

### 관세청장,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 관세외교 강화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미 FTA발효 2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3일, LA 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발효 2주년 기념 특별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미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세 외교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청장은 한-미 FTA 이행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 인사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축하에서, 지난 2년간 양국 경제성장에 활력을 준 한-미 FTA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3.0의 방식의 기업간,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수출입업체들이 미국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미국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LA 세관국경보호청장과는 별도의 면담을 통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백운찬 관세청장은 현지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원스톱지원센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 소개를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입수된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민간 분야와의 해외시장 통관정보 공유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성실업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 쉬워진다

관세청은 4.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등에게 별도의 심사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줌으로써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성실 업체는

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13년 기준 28개)와,

2.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13년 기준 146개) 등이며, 건수 기준으로 연간 약 35,000건 이상이 심사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관세청은,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함으로써 FTA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등 FTA활용 밀착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 관세청, WCO와 원산지협력 사업 진행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여, FTA이행 및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와 다양한 원산지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다.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① 관세청은 WCO로부터 「Origin Certification Guideline」 자문단 참가 요청을 받아,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원산지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② 관세청은 '14. 1. 20 ~ 21 벨기에 브뤼셀에서 WCO가 주최한「WCO Origin Conference 2014」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산지 검증제도(1일차) 및 FTA활용제도(2일차)를 발표,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의 이행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함과 동시에 아국 원산지제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성공 핵심 노트' 발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각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활용 성공 핵심 노트(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단계는 FTA 활용 준비단계로서 FTA의 해결사인 「FTA 원스톱 지원센터」, FTA 활용의 기초인 품목분류(HS) 가이드, 「FTA 상설 교육센터」,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FTA 특화정보가 소개

되고, ▲제2단계인 FTA 활용단계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담고 있다.

끝으로, ▲제3단계는 FTA 문제해결 단계로서 FTA 해외통관애로 신고, 원산지검증 구제절차 및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 구인기업과의 고용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FTA 활용 성공 핵심 노트'를 전국 주요세관의 'FTA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통해 FTA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 배포하고,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하여 관세청 FTA 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 1단계 FTA활용준비단계

FTA 원스톱 지원센터, 품목분류가이드,  
FTA 상설 교육센터 소개

#### 2단계 FTA활용단계

FTA-PASS, C/O 발급지원

#### 3단계 FTA 문제해결단계

FTA해외통관애로, 검증 구제

### 영세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6개 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추가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부담을 느껴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사전에 심사 및 확인하는 것이며,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FTA특혜 수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증명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FTA활용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품목은 제한이 없다.

또한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에 공개하여 기업 홍보에도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전국 확대 실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II. 우리나라 FTA 동향

### 한-호주 FTA 공식 서명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유망시장

한국과 호주간 FTA가 공식 서명되었다. 이로써 한-호주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9, 서명 2, 타결 1)이다.

한-호주 FTA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역의 가공 지역 조항 도입에도 합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호주는 거의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며, 한국은 호주산 제품의 92.4%에 대해 8년 내 철폐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은 약 9,654백만불, 수입은 약 20,768백만불(13위 수출대상국, 6위 수입대상국)로,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 파트너 국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경유(전체 비중 23.2%, 관세율 0%), 승용차(20.5%, 5~10%), 자동차부품(2.9%, 0~1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28.7%, 0~2%), 유연탄(24.9%, 0%), 가축육류(4.2%, 3~72%), 곡류(2.1%, 0~800%) 등이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 산업부,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3월 31일 코엑스에서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의 FTA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통상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난 10년간 FTA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원산지 규정 같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FTA 10주년 종합평가'와 '한·중 FTA, TPP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의 FTA 10년 성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47개국과 체결한 FTA를 통해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 등의 효과를 봤으며, 특히 10주년을 맞은 한·칠레 FTA의 경제적 성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또,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이 연평균 16.3% 증가하는 등 발효 전보다 4배 이상 확대됐으며, 주력 품목인 승용차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12.4%에서 지난해 30.6%까지 올라 일본 및 미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크로아티아 EU가입, 한-EU FTA 추가 의정서 정식 서명

지난 3월 25일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추가 의정서」가 우리측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과 EU집행위 통상총국장 및 의장국 대사간에 정식 서명되었다.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부로 EU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 의정서 체결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협정문 수정에 합의하여 2013년 11월 8일 추가 의정서에 가서명을 실시한 바 있다.

금번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가입으로 인하여 한-크로아티아 양국은 한-EU FTA의 3년차 특혜관세를 상호 적용하기로 하였다.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중임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리측은 크로아티아산에 대한 FTA특혜관세를 2013년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크로아티아 간에 FTA는 사실상 체결되었으며, 한-EU 양측의 국비 비준 등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치면 발효, 적용 된다.



유고연방에서 1991년 분리 독립한 발칸반도 서부에 있는 나라. 정식명칭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다. 수도는 자그레브,

언어는 크로아티아어를 사용하며, 아드리아해연안에 위치한다.

크로아티아는 EU의 28번째 회원국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약 46백만불, 수입은 약 17백만불 (2013년 기준, 134위 수출대상국, 125위 수입대상국)이며,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한-EU FTA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5년간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약 10백만불, 수입은 약 2백만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기준 對크로아티아 수출 1순위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9백만불)이었으며, 수입 1순위 품목은 종이제품(5백만불)이었다.

### 한-뉴질랜드 FTA공식 협상, 서울개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뉴질랜드 FTA공식협상'이 종료되었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등 협정문 협상에서 잔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핵심쟁점인 상품 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우리 농수산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이 커 큰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FTA협상은 2010년 5월 제4차 공식협상 이후 중단된 공식협상을 2014년 2월 재개한 바 있으며, 이번 소규모 공식협상을 통해 차기 협상 전까지 협상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한-캐나다 FTA타결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간 FTA 타결되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간 FTA가 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9년여 만에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FTA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 특히 상품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협상 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G8회원국이며,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은 약 5,203백만불, 수입은 약 4,717백만불(23위 수출대상국, 25위 수입대상국)이다.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전체 비중 42.8%, 관세율 6.1%), 무선전화기(12.7%, 0%), 자동차부품(0~6.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33.6%, 0%), 펄프(6.2%, 0%), 칼륨비료(4.3%, 0~6.5%) 등이다.

### 한-중 FTA 제10차 협상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날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對중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의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하는 등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제10차 협상 주요 쟁점 (상품 양허)

쟁점	한국				중국			
상품 양허	양허안 주요내용				양허안 주요내용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처리 내용	• 즉시 철폐 ~10년 내 철폐	• 10년 초과 ~20년 내 철폐	•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처리 내용	• 즉시 철폐 ~10년 내 철폐	• 10년 초과 ~20년 내 철폐	•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주요 품목 (예시)	• 석유화학(기초유분, 합성수지 등), 기계 (공작기계 등), IT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 기계(베어링, 공구 등), 전자기기(스위치, 변환기 등)	•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제품	주요 품목 (예시)	• 농수산물,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기계 및 철강 범용 제품 등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일부 품목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일부 품목
	주요 요구 사항				주요 요구 사항			
	-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측 조기 관세 철폐				-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우리 입장				중국 입장			
	- 국내 농수산업 영세성 및 민감성을 부각하여 중국측 최대한 설득				- 자국의 對韓 산업 경쟁력 열위, 지속적 對韓 무역적자를 들어 우리 주력 수출상품 조기 개방에 난색			

### III. 해외 FTA 관련동향

#### 호주, 동아시아 주요 3개국 중 한국, 일본과 EPA, FTA 체결

2014년 4월 7일, 호주-일본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타결되고, 양국은 FTA에 공식 서명했다. 특히 양국의 FTA 공식 서명은 2007년 4월 회담을 시작으로 약 7년간 이어진 협상의 결실이다.

EPA는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전망으로, 호주와 일본은 10년 이내에 무역 품목에서 88%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주-일본 EPA는 일본이 체결하는 14번째, 농업 대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EPA로, 농산물 시장 개방 시대에 적극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호주에서의 쇠고기 수입량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호주-일본 FTA로 일본 시장은 호주 상품에 대해 약 9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수입농산품 시장 개방도 이루어져 최대 219%에 달하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 쇠고기, 유제품, 해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및 단계 철폐, 완화될 예정이다.

호주의 경우 광물 및 에너지 자원 99.7%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할 예정이다(對일본 수출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한다).

양국 FTA의 주요 쟁점산업은 자동차와 쇠고기이다. 호주는 자동차 2대 중 1대가 일본차로, 현재 호주 판매 완성차 주요 20대 브랜드 중 일본차가 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순위 10위 모델 중 6개가 일본차일만큼 호주내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큰 편인데, FTA를 계기로 그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호주 자동차 판매 브랜드 TOP 7

	브랜드명	판매 대수	점유율
1	Toyota	214,630	18.9%
2	Holden	112,059	9.9%
3	Mazda	103,144	9.1%
4	Hyundai	97,006	8.5%
5	Ford	87,236	7.7%
6	Nissan	76,733	6.8%
7	Mitsubishi	71,528	6.3%



(2013년  
호주 판매 1위 모델,  
Toyota Corolla)

이미 2005년 발효된 태국-일본 FTA로 혼다, 스즈키 등 주요 일본 자동차의 생산기지인 태국에서 생산된 태국산 일본차는 이미 무관세로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FTA효과까지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對호주 자동차 판매 전략에도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터키 EU의회 설득 실패

터키가 EU가입을 위한 EU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터키 내 정국 상황과 키프로스 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터키의 EU가입은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터키는 3년 반만에 EU가입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터키가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EU 가입에 대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망했으나, 여전히 EU 주요국들은 터키의 언론 검열 등 일련의 조치를 예의 주시한 후에 터키와의 EU가입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 등 일부 법안의 수정이 없다면 EU가입 협상은 지속적으로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시위 및 뇌물 수수사건, 인터넷 검열관련 법규정 검토 등으로 인해 터키의 경제 및 외국인투자의 하락심리는 갈수록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1월 24일 기준 터키 환율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터키는 현재 17개국과 FTA를 체결중이며, 터키와 우리나라의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을 10년 내 관세철폐(한국 99.6%, 터키 100%)하기로 합의 했다.



### EU,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한시적 철폐.

#### EU-우크라이나 FTA 수순

3월 11일 EU의회는 對우크라이나 상품 수입관세를 2014년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입관세 철폐 대상은 공산품의 94.7%와 농축산물의 84%이며, 설탕과 같은 일부 품목들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세철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수혜 정도를 연간 5억 유로에 다를 것으로 보고 특히, 對EU 주요 수출품목인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수혜 규모는 연간 3억 유로 정도로 내다봤다.

올해 11월, EU는 우크라이나와의 준회원가입(AA)과 FTA 체결 완료를 희망하고 있는 바 관세철폐 유효기간을 이 시점으로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양방향 FTA체결 이전까지는 경제적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일시적 조치는 일방적(우크라이나→EU)인 우크라이나의 수혜 기간이므로, 한국 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EU-우크라이나 FTA 체결 시점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이다.

### 페루, 미국과의 FTA체결 5주년

#### 가장 큰 이익을 본 분야는 '농산물'

페루와 미국간 FTA는 2006년 4월 12일 서명되고, 2009년 2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페루 일간지 El Peruano는 페루-미국 FTA가 구매력 기준으로 페루보다 180배 큰 거대 북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미국은 2013년 기준 4년 연속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미국과 FTA체결 희망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입국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간 교역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러시아의 對미국 수출은 2012년 이후 매년 25% 정도씩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르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미 양국간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우회적인 제안을 보냈다.

러시아의 對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일부 분석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FTA를 원하는 것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일본 TPP 협상 현황

TPP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도 되었다. 4월 하순경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보기 위해 양국은 3주간의 집중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PP와 관련된 일본의 관심은 오직 미국의 관세철폐요구에 대해 '관심품목의 수입관세를 얼마나 높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관심품목 분야는 쌀, 밀, 유제품, 육류, 설탕 등이다.

일본의 전략은 쇠고기 수입관세를 인하여 호주와의 EPA를 타결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관세 문제에 합의를 도출해 이를 앞세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선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일간 TPP 예비 양자협정도 지난 3월 6일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금번 예비 양자협약에서는 일본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의 TPP참여분제와 관련한 양국간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쉬어가는 페이지 ] 알기 쉬운 FTA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014. 4)



· 발효된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 타결된 FTA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 협상중 FTA	멕시코, 뉴질랜드, 중국, 일본, 중국-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GCC
· 협상 여건조성 FTA	MERCOSUR,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 FTA 체결과정

